‘10초 23’ 김국영 31년만에 100m 한국신

전국육상 男 100m 예선·준결서 ‘숙원’ 풀어

광주시청 임희남 결승서 김국영 제치고 우승

31년 묵은 남자 육상 100m 한국기록이 마침내 깨졌다.

대표팀 막내 김국영(19·안양시청)이 7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제6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예선과 준결승에서 거푸 한국기록을 갈아치웠다. 김국영은 예선 4조에서 10초31을 찍어 서말구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1979년 동아대 재학시절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작성한 10초34를 0.03초 앞당겼다.

이어 한 시간 반 후 벌어진 준결승에서 다시 10초23으로 자신의 기록을 0.08초 앞당기고 잇달아 한국기록을 깨는 기염을 토했다.

최고기록이 각각 10초42와 10초47인 임희남(26·광주시청)과 여호수아(23·인천시청)도 준결승에서 각각 10초32와 10초33을 찍어 결승에서 더 빠른 기록을 수립할 여지를 남겼다. 전날까지 10초47이 개인 최고기록이던 김국영은 이날 두번 모두 딱 기준 풍속(초속 2m)에 맞는 바람을 타고 쾌속 질주, 예선에서 해묵은 한국 기록을 깨뜨리고 한국 최고 스프린터로 우뚝 섰다.

김국영은 지난 4월 전국 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100m에서 기준 풍속보다 훨씬 센 초속 4.9m의 뒷바람을 타긴 했으나 역대 비공인 한국기록 중 가장 빠른 10초17을 찍어 30년 이상 한국 육상에 ‘마의 벽’으로 존재했던 ‘10초34’의 벽을 무너뜨릴 유력한 후보로 인정받았다.

김국영은 지난달 대구국제육상대회에서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4·자메이카)와 레이스를 앞두고 “주눅 들지 않고 재미를 느끼며 뛰겠다. 10초34에 얽매이지 않고 10초1~2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임희남은 이날 결승에서 10초34를 기록하며 여호수아(10초37)와 한국신기록을 세운 김국영(10초41)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임희남은 결승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1위로 골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결승에서 김국영이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운 바람에 우승의 빛이 바래고 말았다.

임희남, 전덕형(26·경찰대), 여호수아와 대표팀에서 단거리 4총사를 이룬 김국영은 스타트 반응 속도가 넷 중에서 가장 좋다는 평가를 듣는다. 100m 후반부 레이스에서 근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장재근 대한육상경기연맹 트랙 기술위원장의 조언에 따라 200m도 함께 뛰면서 기량이 부쩍 늘었다.

사진판독실에서 한국신기록의 탄생 순간을 지켜본 장 위원장은 “드디어 한국기록을 깨뜨렸다. 뭐든지 도전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김국영이 큰일을 해냈다”고 기뻐했다. /연합뉴스

7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제6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 준결승에서 김국영(안양시청)이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랑이 안방 대반격 보라

김상현·박기남 1군 훈련 합류 ‘화력점화’ 시동

이번주 두산·LG 상대 안방서 승수 사냥 총력전

엉성한 ‘마무리’에 우는 호랑이들.

뒷심 부족의 KIA 타이거즈가 번번이 승리 앞에서 주저앉으며 4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대구와 목동으로의 원정길에 올랐던 KIA는 주말 넥센에게 뼈아픈 역전 2연패를 당하며 3승3패를 챙기는데 그쳤다. 승률 높이기에 실패한 KIA는 28승28패 ‘5할 본능’으로 3위 진입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날렸다.

지난주 삼성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둔 KIA는 최하위 넥센과의 대결에서 1승 2패, 두 번의 역전패를 당했다. 패배를 기록한 주말 두 경기 모두 4점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다.

특히 3위 삼성이 5연패의 부진에 빠졌던 만큼 주말 2연패는 더 치명적이다.

엇박자의 마운드 운영이 결국 KIA의 발목을 잡았다. 4월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면서 패전조, 승리조 구분 없이 과속운행했던 불펜진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완벽한 호흡으로 ‘막강 SKY라인’을 구성했던 손영민·곽정철·유동훈의 부진 곡선이 맞물리면서 KIA는 올 시즌 18번의 역전패를 당했다. 박빙의 상황에 등판해 기록한 블론세이브만 유동훈이 5번이고 손영민과 곽정철도 각각 3개의 블론 세이브를 남겼다.

매일 박빙의 승부가 계속되면서 한 주의 마무리도 좋지 못하다. 연장 10회말 넥센 강귀태에게 끝내기 안타를 얻어맞은 6일 경기를 포함해 올 시즌 9회와 연장 승부에서 패배를 기록한 일요일 경기가 벌써 4차례.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서 다음 일정에 대한 선수들의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 프로야구 중간 순위 〈6월7일 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승차	연속
1	SK	37	18	0	0.673	0.0	3승
2	두산	32	23	1	0.571	5.5	1승
3	삼성	29	27	0	0.518	8.5	5패
4	KIA	28	28	0	0.500	9.5	2패
5	롯데	27	30	0	0.474	11.0	4승
6	LG	24	30	1	0.436	13.0	4패
7	한화	23	33	0	0.411	14.5	1패
8	넥센	23	34	0	0.404	15.0	2승

힘빠진 타선도 불펜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초반 선취점을 내고도 추가 득점이 따르지 않으면서 분위기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 팀타율은 여전히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휴식날이 7일에도 KIA 야수진들은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소집됐다. 오후 1시30분과 3시 두 개조로 나누어 진행된 훈련에는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총 동원돼 ‘화력점화’를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김상현과 박기남도 일단 1군 훈련에 함께하며 복귀 준비에 나섰다.

힘겨운 원정여행을 다녀온 KIA는 이번주 안방에서 두산·LG와 6연전을 치른다. 최희섭을 중심으로 한 클린업 트리오가 이번주 순위싸움의 열쇠를 쥐고 있다.

확고한 3·5번이 부재지만 3번 자리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안치홍과 돌아온 나지완이 마운드 때문에 고민이 많은 두산 그리고 LG와의 대결에서 중심 타자로 활약할 전망이다.

중심타자들의 방망이가 팀의 승리는 물론 불펜진들 부활을 위한 답을 가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희섭 올스타 1차집계 1위

KIA 타이거즈의 ‘빅초이’ 최희섭이 프로야구 올스타전 베스트 10 인기투표 1차집계에서 최다득표 선두를 달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올스타전 투표에서 웨스턴 리그(KIA, 넥센, LG, 한화) 1루수 부문 최희섭이 21만673표를 획득하여 19만7548표의 웨스턴리그 투수 부문 류현진(한화)을 제치고 최다득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7일 밝혔다.

1차 집계에서만 유효 투표수가 36만3799표를 기록하면서 2009년 기록한 역대 최다 투표수(140만1532표)를 넘어설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4경기 연속 멀티히트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4경기 연속 안타를 때리며 득점도 추가했다.

추신수는 7일(한국시각)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US 셀룰러 필드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방문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 2개의 안타와 득점을 하나 기록했다.

4일 디트로이트전부터 4경기 연속 안타를 때린 추신수의 타율은 0.280에서 0.283으로 조금 올라갔다.

1회초 1사 후 우전 안타를 치고 나간 추신수는 오스틴 컨스의 2루타와 조니 페랄타의 적시타가 잇따라 터지면서 홈을 밟았다.

/연합뉴스

로즈 미국무대 첫 우승…우즈 19위

PGA 메모리얼 토너먼트…양용은 23위·최경주 52위 부진

저스틴 로즈(잉글랜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우승을 짜릿한 역전승으로 장식했다.

로즈는 7일(한국시각)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장(파72. 7265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마지막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뽑아내는 맹타를 휘둘렀다.

PGA 투어 162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로즈는 108만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선두 리키 파울러(미국)에 4타 뒤진 채 4라운드를 맞았던 로즈는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적어내며 역전승을 거뒀다. 세계랭킹 1위 등극에 도전했던 미켈슨은 마지막날 3타를 줄였지만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공동 5위, 부진 탈출을 노렸던 디펜딩 챔피언 우즈는 타수를 줄이지 못해 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19위에 머물렀다.

양용은(38)은 버디 3개를 잡았지만 더블보기 1개, 보기 2개를 적어넣는 바람에 1타를 잃고 공동 23위(4언더파 284타)에 올랐다. 최경주(40)는 버디 1개에 더블보기 1개, 보기 2개를 쏟아내 공동 52위(1오버파 289타)로 떨어졌다. /연합뉴스